



[산업]
신입사원 만남 최태원
“패기·딥체인지로
뉴 SK 만들자”
09



Economy

Table with market data: 코스피 (2521.74, +18.01), 코스닥 (901.23, +9.62), 금리 (2.23, 변동없음), 환율 (1062.70, 변동없음).

삼성, 세계최초 ‘폴더블 폰’ 6월 출시

SAMSUNG
삼성전자
고동진 IM사장 CES서 밝혀
여러 업체들과 협업 진행
기존제품과 다른 UX제공
정체된 폰시장 활기 기대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휘어지는 OLED 디스플레이(왼쪽)와 고동진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장(사장).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오는 6월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 소식을 전한 지 7년 만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장(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에서 만난 기자에게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출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를 책처럼 액정을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접었을 때 기존 스마트폰 크기로 휴대성을 강조하고, 펼쳤을 때 تبل릿 크기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반 플렉서블 제품에 비해서도 한발 앞선 기술로 평가된다. 앞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ZTE가 지난해 10월 듀얼 스크린이 적용된 폴더블 스마트폰 ‘엑손 M’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제품은 경험을 활용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것으로, 하나의 화면이 접히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폴더블폰으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사장은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눈길만 끌고 시장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제품이 아니라 진짜 잘 만들고 싶다”며 “폴더블폰에 맞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폴더블 스마트폰을 폄을 때와 접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소비자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 고 사장의 생각이다. 고 사장은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기존 스마트폰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UX) 제공하고자 여러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6월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더해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전시장을 별도로 꾸리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 제품 개발은 완료됐으며 VIP들의 의견을 수용한 뒤 올해 6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CES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공개된 폴더블 스마트폰은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과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 모두 선보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7.3인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로, 정체를 맞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매년 두 자릿수를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개념의 폴더블폰이 출시될 경우 그 동안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

리틱스(SA)에 따르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부터 시장이 조성돼 내년에는 320만대, 2020년 1360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1년 3040만대, 2022년 50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애플도 최근 LG디스플레이와 함께 폴더블 아이폰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는 2020년 출시가 목표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샤오미도 지난해 ‘접었다 펼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연결부분과 접이식 폰’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오포와 레노버는 시제품을 공개한 상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신기루인가, IT혁명인가
코인 이야기 8 가상화폐 내재가치

투기대상 화폐개념 아닌
컴퓨팅 파워 사용할 권리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물 화폐와 큰 연관은 없다. 단지 거래와 환율을 초월한 송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화폐를 대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을 뿐이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먼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떠오른 블록체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방식의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가 서버로 집중된다. 따라서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의 우려가 있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서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이며 그 핵심은 분산 원장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참여자 각각이 분산해 데이터를 보관하며 상호 대조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고치는 것과 내용이 동일한 1만개의 장부를 일순간에 모두 고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10~15초 간격으로 전세계 데이터를 동기화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가 분산되는 만큼 막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중앙 서버 역시 필요치 않게 된다. <6면에 계속>



블록체인의 모식도. 블록체인은 각 참여자 개인이 상호 연결된 형태로 작동된다. 가상화폐는 이 체제를 지탱하는 보상으로 작용한다.

블록체인의 모든 노드는 모든 거래력을 분산 원장 형태로 보관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는 본인의 거래 외에도 다른 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 등 국가 기관이 블록체인에 참여해 전체 거래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력이 보장되기에 제 3자 보증이나 상호 신뢰 없이도 참여자 사이 거래가 가능하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시리아 난민 지원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던 것이 좋은 사례다. 이전까지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지원금을 받을 난민은 제 3자인 금융업체로부터 신용을 보증받아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난민들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가상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난민들이 휴대 인식 기계를 블록체인에 로그인해 직접 물건을 구입하자 비용 부담을 불려일으키는 금융업체의 개입은 필요치 않게 됐다. <6면에 계속>

블록체인의 모든 노드는 모든 거래력을 분산 원장 형태로 보관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는 본인의 거래 외에도 다른 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 등 국가 기관이 블록체인에 참여해 전체 거래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력이 보장되기에 제 3자 보증이나 상호 신뢰 없이도 참여자 사이 거래가 가능하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시리아 난민 지원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던 것이 좋은 사례다. 이전까지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지원금을 받을 난민은 제 3자인 금융업체로부터 신용을 보증받아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난민들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가상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난민들이 휴대 인식 기계를 블록체인에 로그인해 직접 물건을 구입하자 비용 부담을 불려일으키는 금융업체의 개입은 필요치 않게 됐다. <6면에 계속>

현대차 ‘임단협’ 24차례 파업 끝에 마무리 수순

조합원 투표서 61% 찬성
기아차도 잠정합의안 도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마라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아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이 가결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협상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4만 9667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 6082명(투표율 92.78%) 가운데 2만 8138명(61.0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는 이번 주중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4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정기승호·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직영 특별고용 등 1차 잠정합의안 골격을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아차 노사도 지난 15일 열린 임금교섭에서 2017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성 부분은 현대차 노사의 2차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5일 27차 임금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11일 상견례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노사는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와 2017년 교섭 마무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합의점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00% +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이다. 총 금액은 현대차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공헌기금 20억 출연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노사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종업원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기아차 노사는 2016년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용 관련한 TFT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파업 등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금교섭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노사문제에 의한 기아차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가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한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부담 가중,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 판매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노사가 함께 노력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1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업계의 임협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진통 끝에 타결된 만큼 상처는 깊게 남았다.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는 무분규로 임협을 끝냈지만 한국지엠과 현대차, 기아차는 모두 해를 넘겨 이어지는 파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현대차 노조는 2017년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24차례의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차량 7만 6900여대에 1조 62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

코스닥 16년 만에 900선 돌파

코스닥지수가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9.62포인트(1.08%) 오른 901.23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2002년 3월 29일(종가 927.30) 이후 15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중 900을 넘은 것도 2002년 4월 1일(장중 고가 924.40, 종가 877.00)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은 319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890선에 장을 마감한 코스피는 2.38포인트(0.27%) 내린 889.23으로 개장했으나 외국인과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등을 이끌었다.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점점 키우더니 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1억원, 72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은 올들어 11거래일간 총 758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연 초 부진했던 기관의 수



코스닥 지수가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하여 901.23으로 장을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급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은 이날 983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대장주’ 셀트리온(-9.74%)과 시총 2위 셀트리온헬스케어(-1.37%) 등이 하락했지만 그 외 시총 상위 주 대부분이 올랐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